

'11년 제2차 경찰공무원(순경)채용시험 문제

- 정보통신(남·여) -

【국 어】 응시번호 : 이름 : 【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: (서명) 】

1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외래어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요새 학교 벳지를 달고 다니는 대학생들을 보기 어렵다.
 - ② 그 오페라 가수는 늘 앵콜 신청을 받는다.
 - ③ 파리에서 투르까지 테제페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다.
 - ④ 밀크 셰이크 하나 주세요.

2. 다음 중 목적이 무대상연이 아닌 읽기 위한 희곡은?
- ① 모노 드라마
 - ② 뷔넨 드라마
 - ③ 레제 드라마
 - ④ 희비극

[3~4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㉠겨울 나무와
바람
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
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
나무도 바람도
혼자가 아닌 게 된다.

혼자는 아니다.
누구도 혼자는 아니다.
나도 아니다.
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
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.

삶은 언제나
은총(恩寵)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.
사랑도 태양
섭리(攝理)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.

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
말없이 삭이고
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.
황송한 축연이라 알고
한 세상을 누리자.

새해의 눈시울이
순수의 얼음꽃,
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
백설을 담고 온다.

3.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- ① 이 시는 김남조의 작품이다.
 - ② 고독을 초극하려는 시적 자아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.
 - ③ 시각적 이미지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.
 - ④ 남성 특유의 설득적 어조로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다.
4. 다음 중 ㉠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하늘 ② 외톨이 ③ 축연 ④ 세상
5. 다음 중 단어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고등어 두 손 - 고등어 10마리
 - ② 옷 세 죽 - 옷 30벌
 - ③ 사과 한 접 - 사과 10개
 - ④ 한약 한 제 - 한약 10첩

[6~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B 초등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진 길을 올라서니 이내 절 안마당이 보였다. 백중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일을 거두고 있었다. 큼직한 몸집을 한 주지중이 어머니를 보고 반색한다. “아이구 정성도 지극해라. 이렇게 일찍부터.....”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. “스님,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너무 가엾어서.”

꽃물을 찌다. 어제 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설움을 들었을 주지중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. 주지중은 ㉠, “그런데 첫째로 하갸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허나.” 잠시 생각에 잠긴다.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. 어머니는 ㉡ 웃음을 띠면서 주지중을 쳐다본다. “스님, 그만 우리 아일 먼저 해 주세요.” 주지중은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, “.....그럼 댁부터 해 드릴까.....” 주지는 그렇게 걱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. “아우님!”

아우님이라고 불린 시중은 돌아본다.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.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. “어제 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 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.”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었다. 늙은 중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 버린다. 진영과 어머니는 법당 앞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.

- 박경리, “불신시대”

6. 이 소설의 서술상의 주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의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 시간적으로 뒤엉켜 나타나고 있다.
 - ② 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있다.
 -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.
 - ④ 회상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사건과 연계시키고 있다.
7. ㉠과 ㉡에 들어갈 알맞은 말끼리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㉠ | ㉡ |
| ① 극히 사무적으로 | 비굴한 |
| ② 못들은 척하며 | 냉소적 |
| ③ 미안해하며 | 어색한 |
| ④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 | 상냥한 |
8.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이 서로 **틀리게** 연결된 것은?
- ① 현진건 - 운수 좋은 날
 - ② 황석영 - 한씨 연대기
 - ③ 오상원 - 회색인
 - ④ 박완서 - 나목

[9~1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재너머 성궐롱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,
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줄타고
아이야 네 권롱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.
- 정철

(나) 秋江(추강)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.
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.
無心(무심)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.
- 월산대군

(다) ①우논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.
이어라 이어라
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.
至지菊국忽총 至지菊국忽총 於어思스臥와
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느다.
- 윤선도

9. (가)와 (나)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- ① (가)에서는 화자의 풍류와 농촌의 정취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.
 - ② (가)에서는 시적 화자가 술벗을 찾아가는 여정이 생략되어 속도감이 느껴진다.
 - ③ (나)에서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.
 - ④ (나)에서는 물욕과 명리를 벗어난 탈속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.

10. (다)시조의 ㉠과 이미지의 제시 방법이 동일한 것은?

- ① 둥기둥 줄이 울면, 초가 삼간 달이 뜨고
- ②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
- ③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집
- ④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울던 곳

11. 다음 속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- ① 여우 오줌 싸듯 한다 - 무슨 일을 하다 말다 해가며 꾸준히 해나가지 않는 경우를 이르는 말
- ② 식혜 먹은 고양이 속 - 제가 저지른 일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
- ③ 키 큰 염소 똥 누듯 한다 - 무슨 일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아주 수월하고도 거뜬하게 해냄을 이르는 말
- ④ 오동씨 보고 춤 춘다 - 분위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

12. 「한자투성이」의 접미사 ‘-투성이’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‘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’를 나타낸다. 다음 중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?

- ① 벼슬아치
- ② 동갑내기
- ③ 말쑥꾸러기
- ④ 대장장이

13. 다음 글의 앞에 나왔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가사가 처음부터 사대부층에 의하여 생성된 것은 아니었다. 고려 말 나옹화상의 <서왕가>를 효시 작품으로 인정할 때, 가사는 고려 말 승려 계층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, 사대부계층에 가사가 수용된 이후로 본격적인 창작이 이루어지고 가사가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사는 사대부층에 기반을 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.

- ① 가사의 장르적 특성
- ② 조선시대 사대부의 문학 활동
- ③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
- ④ 가사의 대표적인 창작 계층

14. 한자어의 독음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反駁(반포), 淘汰(도태), 羨望(선망), 嗚咽(명인)
模範(규범), 懺悔(재해), 憑藉(마적), 乖離(승리)

- ① 1개
- ② 2개
- ③ 3개
- ④ 4개

[15~1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찰찰하신 노(老)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, 거름을 준다, 손아(孫兒)들을 데리고 ㉠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.
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렇게 누렇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.
“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 텐데…….”
물을 주고 날 때마다, 화단에서 ㉡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.
비가 왔다.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㉢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.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.
“그저 하늘 물이라야……억조창생(億兆蒼生)이 다 비를 맞아야…….”
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.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.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.
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,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.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.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. 노인은 가끔 ㉣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.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 하였다.
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(才功)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.
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(一顧之惠)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.
무력무력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.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.
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.
자연은 신이다.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.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,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?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.
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.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.
- 이태준, “화단(花壇)”

15.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- ① 예스러운 어투가 사용되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.
- ②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.
- ③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.
- ④ 글쓴이의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.

16.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~㉣의 뜻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일삼아 - 뜻하던 일은 못 하고
- ② ㉡어정거릴 - 주의 깊게 살필
- ③ ㉢순조로 - 세차게
- ④ ㉣안손님 - 여자 손님

17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용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 ‘을/를’이 결합되어 실현된다. 그러나 ‘을/를’이 결합되었다고 해서 모두 목적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. ‘-을/를’은 조사 ‘에, 으로, 연결어미 ‘-아/어, -게, -지, -고’, 받침 없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.

- ① 맛을 보려고 이 반찬 저 반찬을 먹어를 본다.
- ② 그 남자가 활을 쏘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다.
- ③ 저 아이는 장난꾸러기인데도 밑지를 앓다.
- ④ 오늘은 웬일로 철수가 서둘러 학교에를 간다.

18. 다음 중 ‘선생님’과 같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선생님 : 자네는 왜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는가?
학 생 : 저는 늦게까지 학교에서 통제 받으며 수업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.
선생님 : 그럼, 자네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인가?

- ①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모르니? 아니, 정말 그렇게도 죽고 싶어?
- ②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, 너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 형편 없는 애구나.
- ③ 이 소설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. 올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.
- ④ 아버지, 저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.

19. 다음 글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, 가장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?

‘손윗사람’에서 ‘손위’는 ‘나이나 항렬 따위가 자기보다 높은 관계’라는 의미로 쓰였다. 그런데 이를 ‘손 위’라고 띄어 쓸 때에는 ‘손의 위쪽 부분’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.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띄어쓰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어휘가 있다.

- ① 누가 길고 짧은 지 한 번 대보자.
- ② 감기를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.
- ③ 그는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.
- ④ 이번 이사할 집은 이전보다 큰 집이야.

20. 한자 성어의 뜻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왕과직(矯枉過直) -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르는 말
- ② 고식지계(姑息之計) - 급한 대로 우선 편한 것만을 취하는 계책
- ③ 다기망양(多岐亡羊) - 거의 죽게 되어 목숨이 곧 넘어갈 지경
- ④ 경전하사(鯨戰蝦死) -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